

‘길고 하얀 구름의 땅’ 뉴질랜드 액티비티의 천국을 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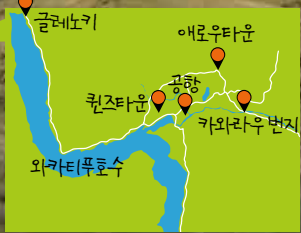
뉴질랜드를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고 불렀다.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이다. 창공에 떠 있는 그 신비스러운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 신기한 구름 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는 바로 모험과 액티비티의 천국이다. 뉴질랜드로 떠나보자. 각박한 도시를 떠나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밑에서 즐기는 어드벤처와 야생 체험은 무한대의 해방감을 선사할 것이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승마, 제트보트, 카약, 래프팅, 트래킹, 하이킹, 스키, 번지점프, 집라인, 골프, 스키, 온천 등 즐길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글·사진 전수영 기자

New Zealand



액티비티의 천국 퀸스타운



1 퀸스타운 밥스 피크 전망대의 카페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현지인들. 뒤로 리마케블산이 보인다. 2 퀸스타운 와카티푸 호숫가의 한 카페 풍경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추억이다. 여행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낯선 땅 현지인의 삶 속에 끼어들어 부딪히고, 생활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문득문득 생각나 그리워지기도 하고, 친구 등 주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랑거리로 소환되는 '여행의 추억'은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여행 기간이 짧다면 현지의 다양한 레저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도 여행의 기억을 추억으로 저장할 좋은 기회다. 여기 220여 가지의 액티비티가 살아 숨 쉬는 곳이 있다. 남반구 뉴질랜드 남섬 끝자락에 있는 퀸스타운이 바로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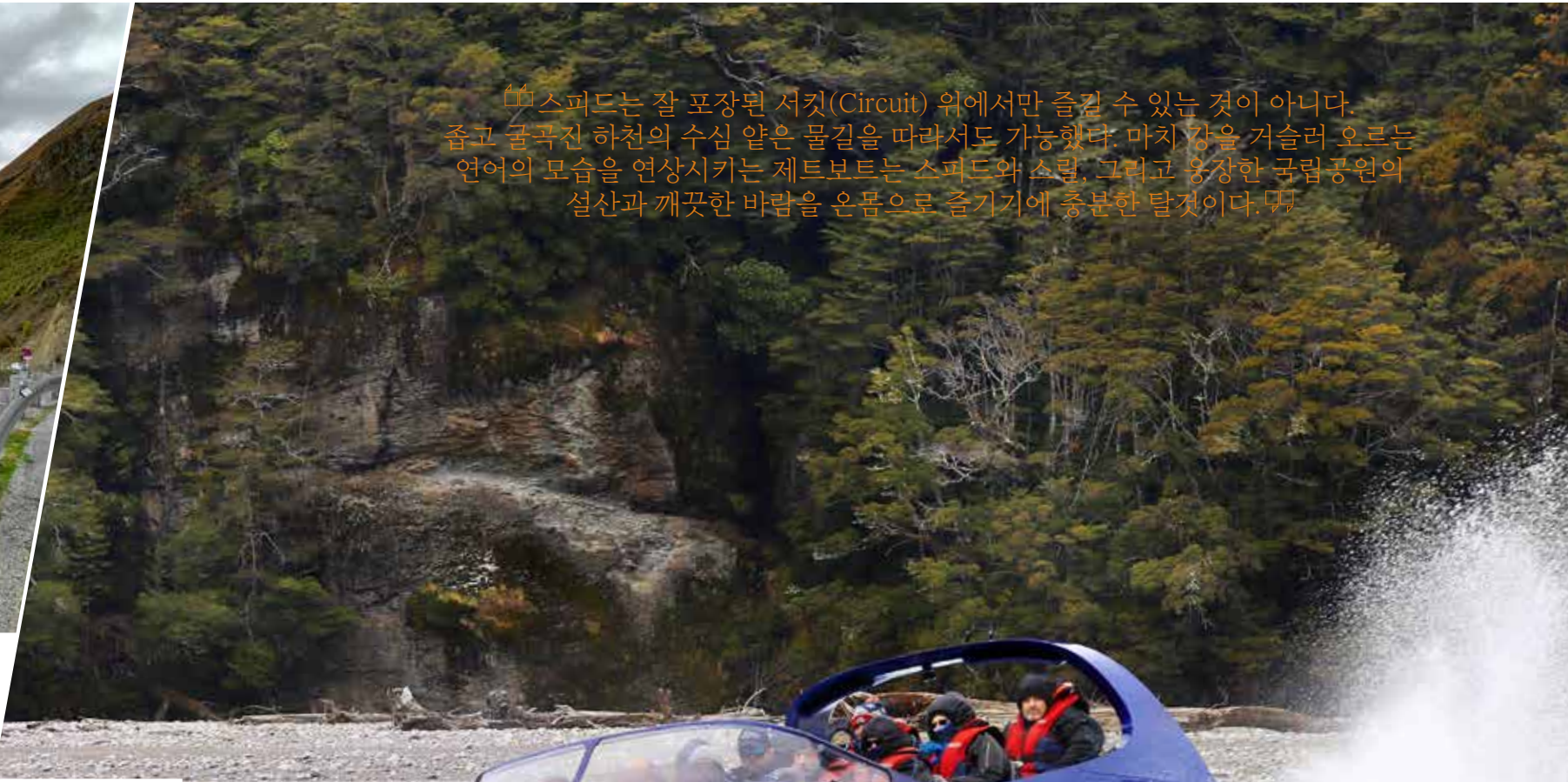
제트보트로 즐기는 닥트 강과 국립공원

해발 2천343m의 리마케블산과 카와라우강, 와카티푸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퀸스타운은 '여왕이 살아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남섬의 휴양·관광도시다. 이 도시의 모든 액티비티를 경험하려면 5개월을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만8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담한 호반의 도시인 이곳을 매년 관광객을 포함해 300만명 이상이 찾아온다고 한다.

퀸스타운에서의 모험은 착륙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됐다. 퀸스타운 공항은 세계에서 착륙이 가장 어려운 활주로로 가진 공항 중 하나다. 비행기는 그에 걸맞게 바람에 기우뚱거리며 협곡 사이를 가로질러 조심스럽게 내려앉는다. '어서 와~ 퀸스타운은 처음이지?'



1



“스피드는 잘 포장된 서킷(Circuit) 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좁고 굴곡진 하천의 수심 얇은 물길을 따라서도 가능했다. 마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제트보트는 스피드와 스릴, 그리고 웅장한 국립공원의 설산과 깨끗한 바람을 온몸으로 즐기기에 충분한 탈것이다.”

퀸스타운에 도착한 다음 날 도시에서 약 46km 떨어진 마을 글래노키의 다투강 방문자 센터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 바로 옆에 펼쳐진 거대한 호수가 눈을 즐겁게 한다. 서울 면적 절반 크기로, 빙하가 만든 와카티푸 호수다.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햇빛과 구름, 바람의 상태에 따라 에메랄드, 밀키블루, 구름이 투영된 잿빛 등 다양한 물색을 띤다고 한다. 마오리족은 그런 호수 밑바닥에 그들의 전설 속 거인 괴물 ‘마타우’가 잠자고 있다고 믿었다.

차로 약 45분을 달리는 글래노키 가는 길은 호수를 둘러싼 세실 피크(1,974m)와 월터 피크(1,815m), 토마스 산맥 등 높은 산들과 동행하는 드라이브 길이어서 더 낭만적이다. 글래노키에 가까워지면서 호수 위 두 개의 작은 섬이 시야에 들어온다. 가는 방향으로 앞의 섬을 돼지 섬, 그 뒤를 비둘기 섬이라고 부른다. 돼지 섬은 이곳 고등학생들의 극기훈련 야영장이라고 한다.

다트강 방문자 센터에서 방수 재킷과 구명조끼를 챙겨 입은 뒤 서틀 버스를 타고 호숫가 보트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제트보트를 운전하는 에단 클락(29)은 보트 운행 경력 4년 8개월의 베테랑이다. 검지와 중지를 하나로 모아 한 바퀴 돌리는 수신호가 보트를 360도 회전시킨다는 사인임을 알려준 클락은 호수 안에서 수신호와 함께 급작스러운 360도 턴으로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마치 강아지 훈련하듯, 그가 두 손가락을 치켜세울 때마다 우리는 앞 좌석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물보라는 머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적신다.

그렇게 가볍게 몸을 푼 보트는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로질렀다. 강둑을 따라가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톱과 자갈톱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을 향해 질주했다. 시속 70~80km로 내달리는 보트 뒤편에서는 오토바이의 배기음보다 더 강렬한 굉음과 물보라가 뿜어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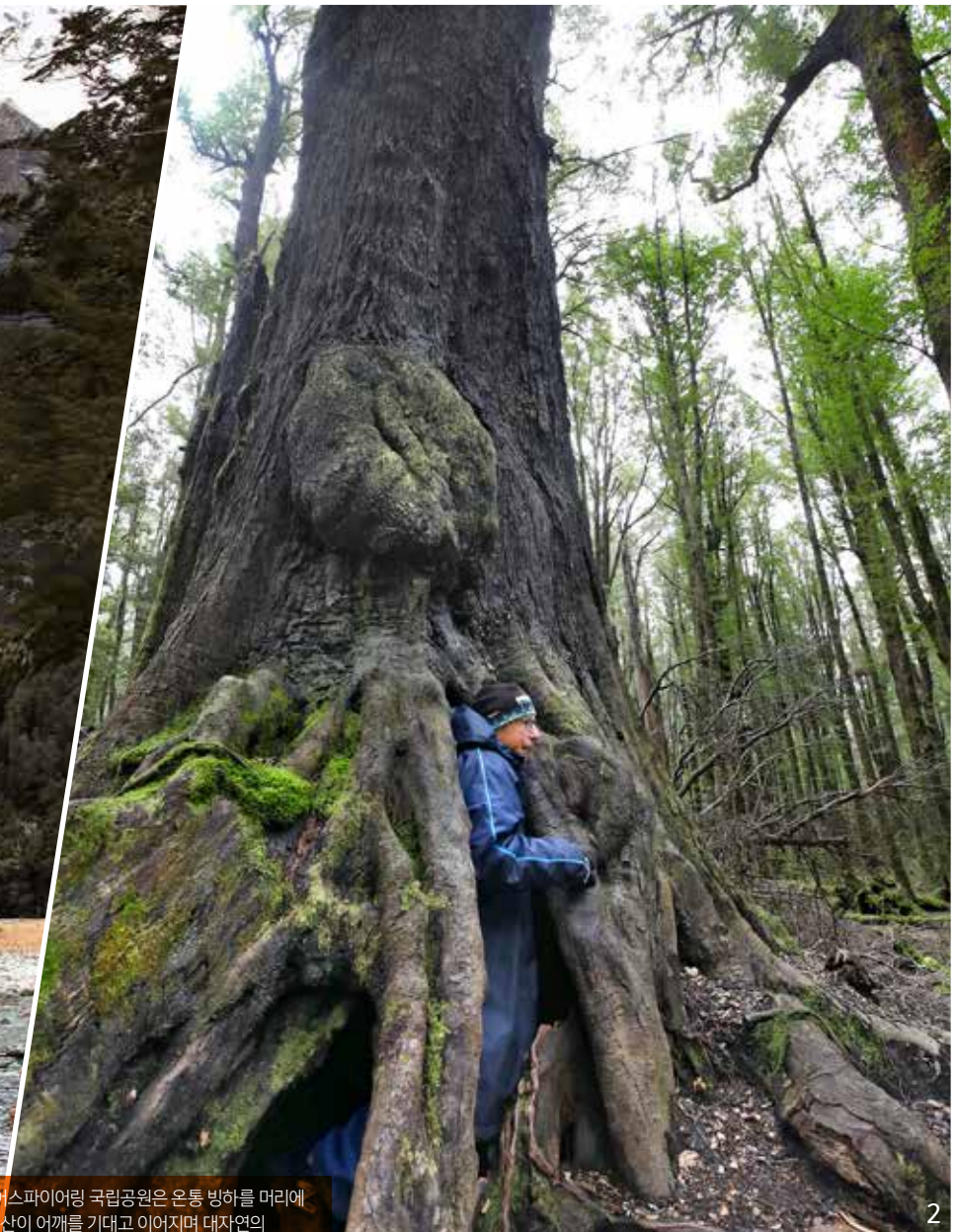
2

1 글래노키 가는 길은 와카티푸 호수를 둘러싼 높은 산들과 동행하는 드라이브 길이다.
2,3 제트보트는 시속 70~80km로 내달려 모래톱과 자갈톱 사이로 흐르는 얇은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3



Tip
[투어 비용 (NDZ)]
(2019년 10월~2020년 5월)
성인 (만 16세 이상) 279뉴질랜드달러
유아 (만 5세~만 15세) 185뉴질랜드달러
가족 (성인 2명 유아 2명) 737뉴질랜드달러



1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은 온통 빙하를 머리에 이고 선 설산이 어깨를 기대고 이어지며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여준다. 2 원시림 속 800년이 넘는 거대한 나무의 밀동 안을 둘러보는 관광객. 3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소품으로 사용된 커다란 나무 의자. 의자에 앉으면 누구나 호빗처럼 작아 보인다.

이렇게 1m 내외의 수심이 얇은 하천을 달릴 수 있는 건 프로펠러(터빈)가 선체 내부로 들어간 보트의 엔진 덕분이다. 선체 내부에서 프로펠러를 돌려 배 밑의 취수구(흡입구)로 빨아들인 뒤 보트 후미에서 고속으로 뿜어내는 물의 힘으로 달리기 때문에 수위가 몇십 cm만 되어도 보트가 나아갈 수 있다.

귀가 먹먹하지만, 속도에 몸을 맡기자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진다. 이유 없는 지그재그 운전엔 탑승객들이 어깨를 좌우로 들쭉이며 환호성을 터뜨린다. 굴곡진 코스를 따라 급회전할 때는 속도의 쾌감이 배가된다. 노를 저어 래프팅을 즐기는 다른 관광객과 마주치면 토끼 귀 모양으로 양손을 높이 치켜들어 손을 휘젓는다. 반가움의 인사라지만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앞서 나가는 토끼의 자부심으로도 읽힌다.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에 얼얼해진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서야 주위 풍경이 두 눈 안으로 들어왔다. 보트의 굉음을 멈춰 세우고 강둑 어귀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고즈넉했다. 온통 빙하를 머리에 이고 선 설산이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이어지며 대지를 포근하게 감싼다. 대자연의 웅장함 그 자체다. 뉴질랜드 남섬의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은 1990년 이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면적은 3천555km로 공원에서 트래킹과 하이킹, 등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해발 3천33m의 높이를 자랑하는 어스파이어링산이 유명하며 그 밖에도 풀럭스산



(2,542m), 브루스터산(2,519m) 등이 높은 산맥을 형성한다.

강변의 간이선착장에 내리기 전 에단의 두 손가락이 또 올라간다. 그렇게 360도 턴을 마치 막으로 우리는 광란의 질주를 마쳤다.

따뜻한 코코아 한잔으로 숨과 몸을 고루 덥힌 뒤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원시림 산책에 나섰다. 숲은 너도밤나무와 토종 사철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 셀 수 없이 다양한 토종관목과 양치 식물, 이끼류가 자라고 있는, 원시림의 모습 그대로다.

가이드가 건네는 '카와카와'(Kawakawa, 페퍼 트리) 나뭇잎의 매운맛을 느끼고, 숲속 동식물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한 트랩과 800년이 넘는 거대한 나무의 밀동 속 텅 빈 공간을 들여다보며 걷는 30~40분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왜 이곳이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호빗' 시리즈, '엑스맨 탄생: 울버린' 등의 영화와 아웃도어 광고 촬영지로 손꼽히는 곳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번지점프의 성지(聖地)

공항에서 자동차로 26분 거리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번지점프를 시작한 카와라우(Kawarau) 다리가 있다. 번지점프를 세상에 알린 ‘성지’와도 같은 곳 이어서 점프하려는 방문자보다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더 붐비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이곳에 번지점프대를 처음 세운 사람은 괴짜 모험가 A.J. 해킷이다. 1980년대 초 우연히 들른 남태평양 바누아투 펜테코스트 섬에서 본 원주민들의 성인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소년들이 칩뿌리와 넝쿨을 엮어 발목에 묶고 약 35m 높이의 나무 탑에서 뛰어내리는 의식이다. 해킷은 고무 끈 탄성에 대한 수학 공식을 발견하고 수천 가닥의 라텍스로 밧줄을 만드는 등 번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 끝에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그린하이트 다리 위에서 직접 뛰어 내린다. 1986년의 일이다.

공포와 스릴을 즐기고 담력을 시험하는 그의 이 괴기한 행동은 뉴질랜드를 벗어나서도 이어진다. 1987년에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110m 지점에서 뛰어내려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불법적인 행동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지만, 홍보 효과는 돈을 주고도 못 살 만큼 컸다.

1988년 고향인 퀸스타운으로 돌아온 그는 번지점프 클럽을 결성하고 그해 11월 12일 카와라우 협곡의 현수교에 번지점프대를 만들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날 발목에 번지 끈을 묶은 28명의 점퍼는 약 43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각각 75뉴질랜드달러의 요금을 지불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205뉴질랜드달러(성인 기준), 우리 돈 약 15만원을 내야 뛰어내릴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약 3배가 오른 반면 아파트 10~11층 사이의 높이인 43m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프대가 됐다는 건 아이러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세계인이 즐기는 레포츠로 발전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한 사업적 욕망이 끝 간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는 2006년 마카오 타워에 설치된 것으로, 높이가 지상 233m에 이른다.

아침이 되면 점프대 개장과 동시에 번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카와라우 다리의 점프대로 향한다. 여성 세 명과 남성 한 명이 차례대로 도우미의 카운트에 맞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비명과 함께 뛰어내린다. 현수교 입구의 전망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반 관광객들도 ‘우와~’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점프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즐기는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나뉜 협곡은 또 그렇게 시끌벅적해진다.

1 A.J. 해킷 번지 안내센터의 이색적인 화장실 픽토그램. 번지점프 하는 남녀를 형상화했다.
2 카와라우 다리위 A.J. 해킷 번지점프대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리고 있다. 협곡 사이로 카와라우강이 흐른다.

2

Tip

[체험 비용(NZD)]

성인 205뉴질랜드달러 / 유아 155뉴질랜드달러
뉴질랜드 학생 175뉴질랜드달러

운영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12월 25일 휴무)

유의사항

- 만 10세 이상 체험 가능. 만 14세 미만은 체험 시 부모 동의 필요
- 체중 35kg~117kg까지 체험 가능. 동반 번지 점프 시 235kg까지 가능



오클랜드에서 즐기는 고즈넉한 섬 마실



〰 오클랜드에서 페리를 이용해 와이헤케(Waiheke),
랑이토토(Rangitoto), 마탕이(Matangi), 로토루아(Rotorua)
등 가까운 섬을 이웃집 마실 가듯 찾아갈 수 있다. 〰





와이헤케 섬 선착장
주변에 정박된 요트

뉴질랜드의 관문이자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오클랜드의 마오리 이름은 타마키 마카우라우(Tāmaki Makaurau)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다. 뉴질랜드 인구 약 480만명 가운데 180만명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다. 서울과 비슷한 면적(559km²)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심에서는 지하철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또 오클랜드항이라고 부르는 와이테마타(Waitemata)항과 화물항인 마누카우(Manukau)항 등 두 개의 항구가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다. 도시 곳곳에 요트가 정박해 있고 해양 스포츠가 발달한 도시여서 '항해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와이테마타항이 레저와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페리를 이용해 와이헤케, 랑이토토, 마탕이, 로토루아 등 가까운 섬을 이웃집 마실 가듯 찾아갈 수 있다.



1

와이헤케섬

이른 아침 주말 휴양지로 사랑받는 가까운 섬을 찾아 나섰다. 와이헤케는 마오리어로 '작은 폭포'라는 뜻이다. 약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92km의 작은 섬 와이헤케는 자동차로 2시간 남짓이면 일주할 수 있다. 주민 2천여명이 매일 오کل랜드로 출퇴근할 정도로 오کل랜드에서 가까운 섬이다. 덕분에 여름 성수기에는 약 3만5천여명의 방문객으로 북작거린다.

페리 항구에서 표를 끊어 배에 올라탔다. 간편한 등산복 차림의 현지인들과 관광객을 가득 실은 배는 중간 기착지 테본포트를 경유해 봄바람을 가르며 호수보다 잔잔한 바다를 질주한다. 섬 선착장까지는 약 50분이 걸렸다. 선착장에 내리자 가이드 니키 위커(50)가 마오리족 인사말인 “키아오라?”(Kia Ora),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테마투쿠 오이스터는 섬에서 하나뿐인 굴 판매점이다. 섬의 주변 바닷가가 해양보존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굴을 채취하고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약 6주 정도 자연 산 굴을 채취해 양식장에서 18개월가량 키워 판매한다.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고 하니 굴에 대해서는 거의 장인 수준인 사장이 직접 생굴을 까주었다. 혀끝으로 밀려오는 짭조름한 맛의 묵직한 생굴을 씹으면 그대로 녹아내린다.

오کل랜드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로 알려진 명성에 걸맞게 이 섬에는 약 2.5km의 백사장이 펼쳐진 오네탕이(Onetangi) 해변이 있다. 하얗고 긴 구름이 낮게 깔린 잔잔한 수평선 뒤로 길쭉하게 뻗은 백사장은 한적했다. 몇몇 산책하는 현지인들이 눈에 띄는 봄의 해변은 백사장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 잔잔히 울려 퍼졌다.



2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의 섬에는 약 23개의 포도원과 와이너리가 산재해 있다. 20여 년 전에 첫 포도나무를 심은 뒤 만들기 시작한 와인 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연 머드브릭 와이너리는 섬 맛집으로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곳이다. 맑은 날에는 바다 건너 오کل랜드의 도심 경관을 즐기며 식사를 하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또 4천200여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 랑이후아 농원을 찾아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맛보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별미체험이다. 페리 터미널에서 배로 25분이면 갈 수 있는 무인도 랑이토토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바다에서 솟아오른 뉴질랜드 최연소 화산섬이다.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 하이킹과 당일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화장실 외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 도시락 등 간단한 요깃거리와 식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용암 동굴 탐험은 또 다른 즐길 거리다.

1 약 2.5km의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오네탕이 해변
2 관광객이 선착장으로 가는 셔틀버스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다.
3 머드브릭 레스토랑 & 빈야드에서 바라본 포도밭. 멀리 오uckland도심이 보인다. 4 머드브릭 레스토랑 & 빈야드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는 현지인



3



4

Tip

[투어 시작 시각]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다시 찾은 에덴산

오클랜드 시내에는 에덴산(196m) 등 화산 분출로 형성된 약 48개의 언덕과 산이 있다. 마오리어로 마웅가화우(Maungawhau)로 불리는 에덴산은 뉴질랜드 본토 사화산 중 가장 높다. 개인적으로 에덴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곳에 처음 왔던 게 2000년 1월이니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산등성이를 휘감는 바람이 시원했고 오클랜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깊게 파인 분화구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그곳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집에 있는 사진첩의 기념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다. 사실 여행을 하면서 같은 곳을 두 번 이상 가는 게 쉽지는 않다. 나도 에덴산을 또 올라갈 줄은 몰랐다.

모르는 게 또 있었다. 이곳이 단순한 화산 흔적의 분화구가 아니라, 뉴질랜드 토착민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오클랜드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로만 알았다면, 이번 방문으로 그 산이 품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약 2만8천년 전에 형성된 산에는 마오리 부족의 전략적 요새인 파(pa), 보관 창고로 사용된 구덩이 및 옛날 마오리 정착지 등이 산재해 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마오리족의 문화유산이다. 타마키 히코이 투어(마오리족 문화해설사와 함께 산을 오르며 그들 조상의 삶의 터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문화 투어)는 마오리족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터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문화해설사 데인 투마하이는 그들 조상의 삶의 터전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약초로 사용하거나 차로 우려먹는 카와카와 나뭇잎.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마오리족 선조가 살던 고향 땅(섬) ‘하와йки’. 그곳은 그들이 죽으면 영혼이 돌아간다고 믿는 폴리네시아인의 원향(原鄉)이다. 마오리족 최고의 신인 땅의 어머니 ‘파파투아누쿠’와 하늘의 아버지 ‘랑이누이’의 사랑 이야기 등 마오리 신화와 관련한 그의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세를 높이고, 적들을 잡아먹겠다는 의지를 다잡는 마오리족의 하카(Haka)도 직접 보여줬다. 하카는 손바닥으로 팔의 바깥쪽과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치면서 눈을 부



1 전통춤 '하카'(Haka)를 시연하는 문화해설사 데인 투마하이 2 에덴산 정상 3 에덴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분화구와 오클랜드 도심

릅뜨고 혀를 길게 내밀며 카마테(Ka mate), 우리말로 ‘죽이다’라고 외치며 상대를 겁주는 행동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전통춤이자 문화유산이 되었다.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 올 블랙스 선수들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경기에 앞서 관중과 상대 팀 앞에서 하카를 쳤다. 팀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상대방의 기를 꺾는 데 하카를 이용한 것이다.

이야기와 확 트인 전망이 어우러진 산행은 두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투마하이는 그들의 노래를 합창하자고 제안했다. ♪~ Te aroha(Love) Te whakapono(Truth) Me te rangimārie(and peace) Tātou, tātou e(To everyone) ~ ♪ 그렇게 마웅가화우(에덴) 산은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 평화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





기본정보



기후, 복장

남반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기후가 정반대다. 가장 더울 때가 1월과 2월, 가장 추울 때는 7월이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10℃ 안팎으로 연중 기온 차가 적지만 남섬에서는 봄과 가을에 해가 지고 나면 일교차가 커 바람막이 등의 걸옷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다.



시차, 전압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3시간이 빠르다. 즉 한국 시각에 3을 더해주면 뉴질랜드 시각이다.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이 적용되는 9월 마지막 일요일에서 4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는 1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때 한국과의 시차는 +4시간이 된다. 표준 전압은 230V/50Hz다. 소켓이 우리와 다른 삼발 모양이어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ON/OFF 스위치가 달려서 ON을 눌러야 전기가 통한다.



에어뉴질랜드, 인천~오클랜드 노선 신규 취항

뉴질랜드 국적기 에어뉴질랜드가 11월 23일부터 인천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인천~오클랜드 직항 노선은 주 3회(월·목·토) 운항하며, 성수기인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2회(수·일)가 추가돼 주 5회 운항할 예정이다. 특히 운항 시간이 약 11~12시간 소요되는 장거리 비행에서 에어뉴질랜드만의 획기적인 이코노미 좌석 제공이 눈에 띈다. '이코노미 스카िका우치'(Economy Skycouch)가 그것인데 세 개의 이코노미 좌석을 합쳐 길쭉한 소파로 만드는 좌석을 말한다.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시 내가 앉은 좌석 양옆으로 승객이 없을 때 팔걸이를 들어 올리고 쪽잠을 자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좌석이다. 스카िका우치 좌석은 편안한 소파 베드를 만들기 위한 풋레스트(footrest)가 추가로 설치된 것 외에는 이코노미 좌석과 디자인이 같다. 필요에 따라

풋레스트를 조절해 90도로 올리고, 창가 또는 중앙 좌석의 팔걸이를 수직으로 조절해 카우치로 만들어 이용한다. 카우치 설치 시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카우치 좌석의 길이는 창 측 팔걸이를 올린 상태에서 155cm로 성인이 발을 길게 뻗을 수는 없지만, 쪽잠을 자거나 동행하는 아이를 돌보는 데 무리가 없다. 온라인 예약 시 이코노미 좌석 요금에 이코노미 스카िका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일행의 인원수에 따라 스카िका우치 1열 혹은 다수, 스카िका우치 1열 및 이코노미 좌석 추가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의 둘러볼 만한 곳



깁스톤 밸리(Gibbston Valley) 와이너리

'와인 계곡'으로 불리는 센트럴 오타고의 깁스톤 밸리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건조한 데다 일교차가 커서 최상품의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무더운 낮의 열기는 포도의 당도를 높이고, 밤의 추위는 산도와 탄닌을 강화해 바디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기후가 피노 누아 품종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깁스톤 밸리 와이너리 창업자 앨런 브래디는 1983년 깁스톤 밸리에 첫 포도나무를 심었다. 1987년 첫 빈티지 와인을 생산하며 센트럴 오타고의 첫 와이너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70% 이상이 레드와인 품종인 피노 누아이고 나머지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 그리, 리슬링, 소비뇽 블랑 등이다. 깁스톤 밸리 와이너리는 30년 이상 수제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 왔으며 레스토랑과 테이스팅 룸, 그리고 와인 저장 동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연적으로 온도 14도와 75%의 습도를 유지하는 와인 동굴은 와인 저장과 함께 와이너리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와인 시음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애로우타운(Arrowtown)

뉴질랜드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짙은 날씨를 '크리스피 웨더'(crispy weather)라고 하는데, 퀸스타운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애로우타운을 찾은 날의 아침이 그랬다. 그 때문에 19세기 골드러시 때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심가를 상쾌한 기분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중심가 버킹엄 거리에는 100년 넘는 아담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운치 있는 카페와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1862년에는 폭스타운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애로우강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애로우타운으로 불리며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음식

마오리족 전통음식 조리법 '항이'(Hangi)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마오리족 특유의 조리 방법이다. 항이는 마오리어로 '지열로 찐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구덩이를 파서 뜨겁게 달군 돌과 함께 익히고자 하는 음식을 넣고 밀봉해 찌내는 전통 요리법'이다. 일종의 구덩이 오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이로 만드는 음식은 아무 곳에서나 맛볼 수 없다. 오랜 조리 시간과 복잡함, 그리고 구덩이를 만들 공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식당이나 가정집 부엌에서 조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이테마타항에는 올해 초에 문을 연 오클랜드 유일의 항이 전문 푸드트럭이 있다. 이곳에서 마오리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트럭 옆에 항이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새벽부터 직접 음식을 만든 뒤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